

합동법회...사찰순례...점심법회

“직장불자회 특색 살린다”

참석을 높고 친목강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정기법회를 꾸준히 봉행하는 직장불자회가 늘고 있다. 특히 자기 직장의 근무환경에 맞는 정기법회를 보는 곳이 늘고 있어 직장법회의 새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교통부 불자회(회장 송도근)는 12일 과천시정부청사 내 농림부, 공정거래위, 보건복지부, 법무부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구 천마사에서 과천시정부청사 불자회 합동 정기법회를 주관했다. 지난해 8월 농림부가 주최한 정월 스님 초청법회에 과천시정부청사 내 개별 불자회원들의 참석과 호응이 높아 농림부불자회 나승렬 회장의 제안으로 현재 각 부처 불자회들이 매달 돌아가면서 합동법회를 주관하고 있다. 이같은 합동법회는 바쁜 업무와 지도법사 섭외의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매달 정기법회를 봉행하기 힘든 개별 불자회들이 법회부담을 덜면서 매월 법회를 보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불자회간의 상호 교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다른 직장불자회의 부러움까지 사고 있



과천시정부청사 공무원불자들이 합동 법회를 봉행하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열린 정월스님 초청법회 장면.

다. 특히 과천시정부청사내 기사관에 합동법회를 공고하고 있어 불교에 관심있는 공무원들의 법회동참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불자회 강인준 총무는 “청사 내 기사관을 보고 재경부, 노동부, 환경부 불자들도 참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 부처에 불자회 창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이길영)는 지역 사원연합회와 연계해 관내 72개 사찰을 순례하며 법회를 보고 있다. 사찰순례법회는 구청에서 자체 법회를 볼 경우 불단을 설치해야 하고 지도 법사를 섭외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금은 차량지원 등 구청의 협조로 매달

1일 7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다양한 부서에 근무하는 불자회원들이 사찰을 방문해 사찰의 행정 불판이나 문화재 관련 상담도 법회를 통해 이루어져 사찰의 호응도 좋은 편이다. 그 밖에도 강남구청 불심회, 서대문구청 불심회 등 여러 구청 불심회들도 사찰 순례법회를 통해 지역 사찰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은행 불자회(회장 윤주희)는 회원들의 업무 종료 시간이 제각기 달라 저녁에 모임이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내에서 법회를 보고 있다. 또한 KBS불자회(회장 정종철)도 24시간 방송에 따른 교대 근무 등으로 회원들이 같은 시간에 모이기 힘들어 매월 넷째주 토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법회를 보고 있다. 정종철 회장은 “1시간 동안 법회를 보고 점심을 먹어야 하기에 시간제약으로 삼기의 반야심경 등으로 약식법회를 보고 있지만 참석인원이 외부에서 할때보다 훨씬 많은 것 같다”며 “특히 사내에서 법회를 볼 경우 다른 사원들은 불자회의 존재를 알게 되고 불교에 관심 있는 사원들이 자연스레 법회를 찾고 있어 불자회원 배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경산 조폐장 금강회, 대우종합기계·KAI불교법우회, 국립서울정신병원 등도 경전공부 법회를 봉행하는 등 회사 사정에 맞는 특색있는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nia.com)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300인 선언에 참석한 효림·진관스님(오른쪽부터).

한반도 평화·통일 300인 선언

한미정상회담 맞춰 군비 감축 등 촉구

올바른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민간 모임은 5일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선언’을 발표했다.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효림스님, 고은 시인 등 선언에 참여한 각계 인사 300인은 미 부시행정부에 국가 미사일방어체계(NMD) 철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비 감축, 대북한 군사 훈련 축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고, “모든 국민과 정치세력, 언론은 낮은 냉정의

식과 편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대행진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국 부시행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미국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에 대해 간섭·개입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언에는 박형규 목사와 문정현 신부 등 성직자를 비롯 김진균·백낙청 서울대학교수,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정태훈 황석영씨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김재경 기자

우리 모임에선

철혈협 불교자료실 개설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회장 박창식은)는 사내 인터넷(intra.korail.go.kr)에 불교자료실을 오픈했다. 불교자료실에는 불교상식, 불교문화, 불교시사자료, 불교미술 등 다양한 불교자료들이 올려질 계획이다. 정찬연 불교자료실 관리자는 “불교 자료들을 매일매일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이라며 “철도청 법우들이 이곳을 방문해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시청 불자회 창립

경기도 시흥시청 불자회인 ‘진선회’가 지난달 21일 시흥 법통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에서 20여명의 참석자들은 초대 회장에 김정규 자치행정국장장을 추대하고, 매일 격주로 법통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정규 초대회장은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지키며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불동’ 삼천배 철야정진

천불동 평화마을 봉사

유불동 아함경 공부

피시통신 동호회들이 최근 전국모임, 지역모임 등 오프라인모임을 통해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심을 키우고 있어 주목된다.

하이텔 불교동호회(대표시사 이성모) 서울경기 지역모임은 11일~12일까지 무박 2일동안 서울 충정사에서 철야정진법

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참석한 20여명의 회원들은 묵언정진, 참선, 삼천배 기도정진을 하며 신심을 키웠다. 또한 부산 경남 지역모임은 4일 부산구치소 경비 교도대를 위문하고 교도대 장병 50여명과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유니텔 불교동호회(대표시사 오기석)는 지난달 24~25일 양산 통도사에서 전국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통도사 포교국장 오신스님의 사찰안내와 성보박물관

관람, 전국모임 합동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서울경기지역 모임은 12일 국청회 법당에서 동국대 불교학과 조용길 교수를 모시고 아함경 경전공부 모임을 개최했고 전라, 경북, 경남, 부산 모임도 지역법회를 봉행하며 불심을 다졌다.

그 외에도 천리안 불교동호회(대표시사 김용태) 부산지역모임도 지난달 25일 삼랑진 평화의 마을에서 봉사모임을 가졌고, 나무누리 불교동호회(대표시사 최용원) 서울경기 지역모임도 9일부터 11일까지 삼원사 적멸보궁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김두식 기자

게시판

알림

▲무료 한방진료=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11일부터 매일 격주 일요일 오후 2시~5시까지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한다.

진료과목은 침구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피부과 등이며 진료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진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02)385-1351

▲이혼편모 아동 무료 프로그램=자양사회복지관은 서울시 공동모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혼편모 아동 무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초등학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심성훈련 및 학습프로그램, 월 1회 아토타입 등으로 진행된다.(02)458-1664

▲관우량수경·‘불교와 새로운 문명’=부산 정토회 정토법당은 13일~4월 24일까지 관우량수경 및 ‘불교와 새로운 문명’ 강의를 개최한다. 관우량수경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불교와 새로운 문명’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범문스님의 강의로 진행된다.(051)557-6372

▲불교기본교육=광명 금강정사는 6일부터 3개월간 불교 초심자를 대상으로 기

본 교육을 실시한다. 강의는 주·야간반으로 나누어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진행되며 수강생들은 불교의식, 부처님생애, 기본교리, 법회와 수행 등 배운다. 김두식 기자

▲광명문화센터 회원=총북불교문화회관 광명문화센터는 어린이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제 5기 회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동요노래교실, 창작동화구연, 사물놀이, 생활기공, 댄스 스포츠 등이다.(043)294-6193

▲남방유 후원회=남구종합복지관은 독거노인에게 난방용 기름을 보시할 후원을 모집한다.(053)476-7700

지역불교 문화기행

동백꽃에 묻힌 남도산사

3월:백련사·대둔사·미항사

‘지역 문화의 해’를 맞아 현대불교가 연중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지역불교 문화기행’이 첫 걸음을 옮겨놓습니다. 3월은 흐드러지게 핀 동백꽃 숲에 묻혀 있는 남도의 산사를 찾아갑니다.

8명의 국사를 배출한 천태종 결사도량인 백련사에서는 만덕산과 강진만 바다가 빛내는 환상의 정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대둔사에서는 조선후기의 명필 원고 이공사가 쓴 편이 돌보이는 대웅전과 통일사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삼층석탑(보물 제320호) 등을 만나실 수 있고, 초의선사가 차문화를 일으킨 일지암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남도의 봄내기가 가득한 미항사도 새봄을 맞는 불자 여러분들께 청량제가 될 것입니다.



동백꽃에 묻힌 백련사 경내.

- ◇출발: 3월 24일(토) 밤10시,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5만5천원(초식·중식 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후원: (주)한화여행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n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토종 오가피의 신비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延年不老 仙藥也(연년·불로 선경약야)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축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나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 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능력"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나무 재배하실분!
◎전망 좋고 사업성 있는 직물을 찾고 계십니까?
국산 토종오가피나무를 심어보십시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도와드립니다.
재배설명회에 직접오셔서보고 듣고 오가피 농장도 확인하신후 결정하십시오.
오가피 건강상담·설명회 참가신청 ☎02)968-7711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인은 끝...
이 향비를 신원할(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용식물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향비는 자연향인 패몬치드가 세라도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임부의 뱃속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탈색현상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체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사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때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 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원혈)에 찌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랄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썹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 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 매달되는 증상(○) 마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대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어 있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탈비탈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바짝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번기가 심한 편이다
18 담뇨나 감성으로 고통을 당한다